

#대입

#정시

#데이터로 보는 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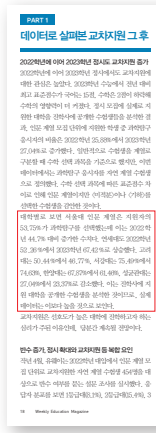
데이터로 보는 입시 03

유독 성균관대만 교차지원 비율이 낮은 이유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1084호 WEEKLY THEME

'인문 · 자연 경계 무너질까, 교차지원 그 후' 기사 중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인문 계열은 지원자의 53.75%가 과학탐구를 선택했는데 이는 2022학년 44.7% 대비 증가한 수치다. 연세대도 2022학년 52.26%에서 2023학년 67.42%로 상승했다. 고려대는 50.44%에서 46.77%, 서강대는 75.49%에서 74.63%, 한양대는 67.87%에서 61.46%, 성균관대는 27.04%에서 23.37%로 감소했다. 이는 진학서에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데이터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백분위	2023 성균관대 탐구 변환 표준점수			2023 서강대 탐구 변환 표준점수		
	자연 계열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인문 계열
	과학탐구	사회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	
100	70.0	70.0	72.0	71.50	70.0	
99	69.63	69.63	70.78	69.82	68.90	
98	68.8	68.8	70.0	68.18	68.10	
97	67.89	67.89	68.62	67.43	67.40	
96	66.83	66.83	67.92	66.89	66.77	
95	66.42	66.42	66.88	66.29	66.28	
94	65.87	65.87	65.91	65.86	65.86	
93	65.3	65.3	64.94	65.46	65.45	
92	64.77	64.77	64.43	65.07	64.98	
91	64.36	64.36	64.04	64.56	64.63	
90	63.38	63.78	63.66	64.19	64.29	
89	62.96	63.56	63.31	63.81	63.98	
88	62.53	63.33	62.88	63.42	63.58	
87	62.18	62.98	62.54	63.11	63.28	
86	61.86	62.56	62.2	62.82	62.98	
85	61.54	62.44	61.88	62.53	62.69	

<미적분>이나 <기하>와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이 인문 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비율이 서울 주요 대학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사에서 소개한 교차지원 비율을 보면 2023학년에 연세대는 67.42%, 고려대는 46.77%, 서강대는 74.64%, 한양대는 61.46%에 달했는데 성균관대만 23.37%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별 탐구 변환 표준점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표에서 성균관대가 계열별 지원 시 적용하는 탐구 변환 표준점수를 봐주세요. 인문 계열 지원 시 과학탐구 선택자와 사회탐구 선택자의 변환 표준점수 차이가 보이시나요? 교차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서강대의 2023학년 탐구 변환 표준점수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백분위 100을 받았어도 과학탐구 선택자가 인문 계열 학과에 지원하면 변환 표준점수가 70.0이지만 사회탐구 선택자는 72.0입니다. 여기에 인문 계열 탐구 반영 비율인 30%를 곱하면 그 차이는 좀 더 벌어집니다.

반면 대다수 서울 주요 대학들은 2022학년에 과학탐구 선택자의 변환 표준점수가 높았고, 2023학년에 인문 계열 학과에 지원 시 과학탐구 선택자든 사회탐구 선택자든 같은 변환 표준점수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차지원으로 성균관대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정시는 수능 100% 전형으로, 0.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합격하는 구조이기에 성균관대 교차지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

〈내일교육〉 기사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표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데이터로 보는 입시'는 지난 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편집부에 알려주세요. 한걸음 더 들어가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집자